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2강 신자는 누구인가1 (롬 6:1~2)

1.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의 두 가지 반응

A. “정말 그렇다면, 어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춤을 추고 축제를 벌여야겠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는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벗겨주신 자유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영원한 운명이 나도 자신할 수 없는 나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조심하라. 유사품이 있다. 이런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예배가 적지 않다.

B. “정말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주었을 때, 이런 반론이 제기될 것을 알았다. 그것이 로마서 6:1절에 나타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20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고, 크게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이익제기이다.

2.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을 가르친다는 비난

A. 복음을 전하는 자의 두려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율법도, 도덕도 집어 던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 자신이 율법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위에 율법의 행위를 조미로 치듯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만일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면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신자들은 갈라디아교회처럼 점점 더 복음에서 돌아서게 되고 자유함 없는 율법의 행위에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이와 같은 율법폐기론 혹은 도덕률폐기론을 전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알고 로마서 5:20~6:1을 썼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복음 설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내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런 오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3. 신자 = 죄에 대하여 죽은자 (롬 6:2)

본문에서 사도가 다루려는 반론이 이것이다. “당신 말대로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야겠군요.” 사도는 6:2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다.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A. 완전주의(perfectionism)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일 3:9).

이 말은 신자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런 주장을 완전주의라고 말한다. 이들은 요일 3:9을 근거로 이 구절을 해석하여 신자의 마음과 몸이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에서 ‘죄를 짓는다’는 동사를 헬라어의 독특한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죄 속에서 산다, 죄를 짓는 것이 삶의 경향이다’라는 말이 된다. 즉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신자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B.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이 말씀을 신자가 깊은 영적 생활을 경험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다.

C.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이 말씀은 신자가 죄를 이기는 체험을 하고 산다는 말도 아니다. 로마서 6:1~11은 신자의 체험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변경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본문이다.

4. 정리 : 명령법과 직설법을 구분하라.

성경에서 명령법과 직설법을 구분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한이 말씀은 신자가 행해야 할 율법(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자가 날마다 믿어야 할 복음으로 제시된 말씀이다.